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명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일 시 : 2019. 10. 21.(월) 17:00
- 장 소 :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장
- 참석자 : 김용관(위원장), 박은미(위원), 김원중(위원), 이춘태(위원), 정남형(위원), 정진임(위원)
- 배석자 : 정은영(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창(구의원), 박세은(구의원), 정준호(구의원), 김환철(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안 건 :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3차)

○ △△△ 간사 :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심사 위원회에 참석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제3차 심사의 건입니다. 먼저 심사에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 전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주재로 2019년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어려운 것을 만들어 가느라고 의원님들도 고생하고, 저희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회의인데 최선을 다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3차 심사의 건입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오늘 심사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차, 2차 심사를 통해 출장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한 위원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있어서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시간 회의가 끝나면 재무건설위원회 출장계획도 심사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행정복지위원장님을 통해서 수정계획서 간략히 먼저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회의 때 심사의견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결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서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애매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회한 심사의견서는 위원님이 보충으로 가져오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적정 부적정을 표시하지 않고, 종합의견을 표

시하고 우리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에 의견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출장계획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 등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1일 열린 1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서의 심사 목적 불분명 및 자료 미비 사유로 보류 결정이 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2019년 2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보완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 위원회 결과는 1차 심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류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10월 17일 행정복지 위원님들과 2차 심사 위원회 보류 결정에 관한 내용,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고,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티라타나 웰페어 복지시설과 스와미 흠 노인 복지시설 방문에서는 민간 협치 차원에 자원봉사 활성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의 밑바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계적 선진관광 국가인 싱가포르 관광청과 머라이언파크, 주룽새 공원 등 방문에서는 우리 구 북한산 한문화 관광특구와 불광천 방송 거리, 컬처노믹스 추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문화 예술 특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소통의 장, 국립도서관의 발전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관련 규칙이 제도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만큼 우리 은평구 실정에 맞는 사례를 배워와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보다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심의회에 다루었던 싱가포르 자원순환시설 방문은 은평구 현안 사안이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적합지 않은 일정이라는 심사 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원시설 방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3차 심사 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 : 보내주신 자료는 충분히 검토됐고, 위원님께서 샘플을 위원장님께 드렸나요?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이 한 사례를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이 없는 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계속 수정 보완을 두 번이나 했고 세 번째 열리는데 또 하나가 약간, 이 내용 때문에 적정이나 부적정을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뒷장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출장 일정에 보면 맨 오른쪽에 날짜, 출발지, 도착지, 업무 내

용까지는 우리와 유사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접촉 예정 인물, 직책을 포함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면, 기관이나 사람을 쓴다든가 하고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현장 시찰 식으로 기재를 했어요. 우리도 공무출장계획서에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 부적정 결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이것은 저희 심사 위원들한테 이메일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정하는 거로 해서. 일단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1차, 2차 토론을 충분히 했는데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는 삭제했고, 이미 이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하셨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는 하였을겁니다.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도 많이 고심하신 듯한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도 수정이 많이 됐고, 실질적인 부분이 많이 첨부된 것 같아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 △△△ 위원 : 그때 예산 경비나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통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고 여행사분께서 일비가 26달러인 게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자부담한다고 말씀도 하셨었고,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전체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산으로 집행되는 의정 연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1차 회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출장 경비 내역은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동 내용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나 이런 부분이 질의에서 중요하고 순차 통역을 하실 텐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것 하나 여쭙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각 방문지에서 어떤 질문 할 건지 질문지 같은 것들 준비나 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합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먼저 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세부 사항으로 해서 통역비 얼마, 식비 얼마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서가 나와 줘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 그것을 통해서 하루에 경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재무전문위원님이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정액 지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85% 상한선 이하에 한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했을 때 예상 금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6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준해서 우리가 몇 명이 갈 테니 여행사 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 모집에 참여한 여행사에 한해서 수행 가능한 여행사가 접수하였고, 로열 오디세이

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방문하는 기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지가 몇 군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수용하였고, 그런 사항 중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금액을 넘겨주는 것이지, 하루에 식비 얼마, 통역비 얼마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내에서 통역비 등이 운용이 될 것입니다. 차량 및 숙박비, 식비 등도 그 금액 안에 전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위원 : 이 자료 자체가 여행사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여행사에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하여 여행사에 드리는 겁니다.

○ △△△ 위원 : 그래서 여기 나온 표 자체가 더 세부적으로 보완될 수 있진 않나 이거죠.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통역비가 더 추가되고 하진 않습니다. 이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의원 : 그 여행 경비 관련해서 첨언 드리자면 공무국외출장규칙에 11조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면 출장 경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예산편성 기준 및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을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내역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통역이나 세부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의원님들이 공공 기관을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 사항 같은 게 전문적인 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여행사에서 그런 것까지 대비된 통역이 가능하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 △△△ 의원 :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외 연수를 진행하는 여행사와 심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패키지여행을 진행하는 여행사들은 수행을 잘못합니다. 국외 공무 연수를 많이 진행하는 곳이 기관 대 기관 미팅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문용어나 단

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초선 의원이라 한 번도 가 보진 못했지만, 충분히 자신감을 표했고, 그런 업체가 또 선정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의원 : 좀 전에 현재 예상 질문지를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복지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 티라타나 소사이어티를 살펴본 바 이 시설은 종합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예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급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깐 시설 규모가 다섯 개의 시설에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 생활 시설 세 군데 노인 보호시설 두 군데, 여성 보호시설 한 군데, 지역복지 시설 네 군데, 아동 클리닉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시설인 만큼, 포괄적인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 은평천사원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고, 정부 지원이나 인력 구성, 복지에 대한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 종교에 대한 시설 유지 등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불교 종교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부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의원 : 그리고 논의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질문이 아무것도 없이 현장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지나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좀 더 특화되어 있으니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금일 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기관별 연구 후, 기관별로 질문지 등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보충자료 보시고, 주민복지, 도시계획, 문화관광, 교육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검토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뒤에 보면 접촉 예정 인물 등의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추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머가 있느냐, 이런 것도 공공 기관에 갔을 때 우리를 맞이할 담당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분명히 질문할 텐데, 이러한 자료가 타구 자료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접촉 예정 인물, 직책 등을 추후 보완 바랍니다.

○ △△△ 위원 : 오늘 세 번째 회의인데요,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힘도 들고요. 그런데 지난 회의 마치고도 사실 심사위원님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그래도 공개 모집으로 심사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출장을 반드시 막아

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경비, 식비, 숙박비로 나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공비를 제외하고는 통으로 집행된다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쓰는 돈과 다르지 않나 하는 의문점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데, 사실 예산이 1인당 26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출장 다녀오시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부담도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늘리고, 만약 지금 당장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주어진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 2차 회의와 오늘 회의하면서 느끼는 게 출장 관련해서 회의도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이 많을 텐데 그 내용이 충분히 서류에 담겨 있었으면 훨씬 심사위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건 많지만 서류상으로는 너무 간단하게 느껴져서 심사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신 것만큼 자료를 충분히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기 전에 다른 자치구 들어가서 자료를 좀 봤는데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관악구나 마포구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성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이것을 하기 위해 어떤 회의, 사전 전문가 접촉 과정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출장이 이런 배경에서 준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빨리 알아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회의에서 다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 나가다 보니 많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의원 :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식 변경, 서대문 것이죠? 서대문 양식에 대해 어떤 부분을 변경 요청하신 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답변하고 있는 의원들 몇 명에서 양식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의원으로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다고 하면 3일 안에 출장 계획서가 공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한 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저희들이 의결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정회 후 위원님들과 상의한 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자면, 경비, 식비, 숙박비가 통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자료를 세분화시키자는 것이 추후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부담은 불가능합니

다. 계획서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출장 계획서에는 자부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계획서 안에서 계획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출장 서류 미비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추가 수정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향후에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위원장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공개해서 상당한 용기를 내서 심사 위원이 된겁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형식이라던가 내용을 갖춰 놓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심사계획서가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너무 간략한 것 같아 좀 더 배경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풍부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덜 힘들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질의 응답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회의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교집합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다 완성될 순 없고, 추후에 계속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의회에서 계속 출장 나가실 거고 활동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 △△△ 위원 : 저는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하려고 했는데,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볼 때는 하나 빠진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자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지난번에 캐나다 갈 때 30~60만 원씩 자부담 내셨고 계속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급지가 다를 순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방식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구의원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간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도 계셔서 아는데, 자부담을 계속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 의원 :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을 늘려서 자부담을 없애는 게 어떠냐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을 잡을 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올 때 자부담 없이 다녀오란 취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계획서에서 자부담 없이 가는 것, 지금 예산을 늘릴 순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심사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저희 의원님들끼리 나오는 얘기를 하나만 하면 예산안을 잡을 때 나라까지 정해서 국외 출장 내년 예산을 잡아야만 자부담이든 심사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해소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도 공무국외출장을 미주 급지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에 맞도록 계획을 잡지 않는다면, 사실은 계획이 나와 줘야지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공무국외출장을 하면서 추경을 한다? 어떤 국민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안에 맞춰서 나라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잡은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고, 향후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일정에 비해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신다면, 올해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이해는 하겠습니다. 갑자기 심사 위원들이 공모로 뽑혔고, 일정을 촉박하게 잡고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사 기일을 미리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두 번 연기하는 바람에 항공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용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으니, 만약에 내년에 가실 것 같으면 올해 준비하시고, 심사 일정을 미리 좀 넉넉하게 달라는 것 지금 저희들도 매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질문은 아니고 의견 하나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다, 그리고 자부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인지했는데, 심사 위원들은 자부담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방법은 저는 찾으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일정이나 날짜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자부담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지, 출장을 가는데 자부담을 당연하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의원 :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 △△△ 위원 : 작년에 캐나다인가요? 그때는 아마 비행기표를 공무원들이 잡고, 저가로 해서 잡았고, 나머지 일정에 관해서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예산이 삼십만원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이던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일정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기 바랍니다.

○ △△△ 위원 : 여기 심사의견서 항목에는 있는데, 말씀이나 계획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이,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비책입니다. 그게 평가 항목에는 다 있는데 계획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오늘도 보완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엄청 중요해서 날씨가, 제 작년에 서울 어떤 기초 의회가

날씨 때문에 방문해야 하는 기관을 방문을 못 하고 일반 방문만 하다가 온 거로 자료를 보기도 했는데, 그점은 어떤가요?

○ △△△ 위원장 : 그것은 의원님이 2차 때 말씀드렸는데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곳에는 그런 곳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그래도 가기 전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물어볼 게 없습니까?

○ △△△ 의원 : 예를 들어 공무국외출장 중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의 IS 형태 등을 보러 간다는 것은 이런 지역들은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위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 △△△ 위원장 : 그래도 추가 자료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니 특별한 게 없다고 붙여 주는 게 형식상 맞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사와 공무국외출장을 연계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평구에 현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벤치마킹하는 것이 출장의 목적일 텐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몇 분이 나가시던 예산이 얼마가 되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니, 여행사가 아니라 직접 사전 답사를 다녀와서 예산도 편성하고 내용도 수정하고 더욱 내실 있는 그러한 출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한번 내년도 2020년도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가시면 여섯 분이 계속 함께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 분담도 되셨을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시간이 많이 할애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은 정말 필요하면 하루나 이틀 더 머물 수도 있는데, 꼭 모든 분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사전 답사를 다녀와서 업무분장된 분들끼리 따로 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실정 및 현안에 맞는 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배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심사의견서 수합, 위원장에게 제출)

○ △△△ 위원장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 △△△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은평구 의회와 아마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같은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통역비, 소개비 등이 별도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책정이 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만약에 제도화할 게 있으면 제도화를 해주시고, 올해는 어차피 나온 예산과 항목 가지고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치고, 내년에 예산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 의원 : 제가 알기론 회의록이 녹음되고 있고, 회의록이 구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 좋은 건의안을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은평구에는 총 19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관련된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소관 업무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의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명히 논의하고 고민하겠지만, 이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이 실현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 : 저희들이 기존에 제출한 수행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방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명시를 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방문 기관의 담당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담당자의 연락처 등은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사안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방문지의 담당자를 수정 계획서에 넣어 주시는 거로 해서 위원들이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결정해주세요.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수정 계획서에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5명 거수)

○ △△△ 위원장 : 네,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1명 거수)

○ △△△ 위원장 : 위원님은 의견이 반대입니까? 기권입니까?

○ △△△ 위원 : 반대입니다.

○ △△△ 위원장 : 그러면 규정에 의하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의결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수정 안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 △△△ 의원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 위원장 : 네

○ △△△ 의원 : 일단 결과 나온 다음에 보충으로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방문 일정에 방문 시간을 명시하고 업무 내용란에 방문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까지도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수정해서 일정에 맞춰서 수정 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3분의 2가 찬성하셨으므로 의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